2024 신년 필진들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강화했다. 오피니언 지면을 강화하고 논설위원을 대거 보강했으며, 불교문화 유산·인문학·사찰음식 기행 등 대중성에 기반한 신규연재들을 새로 선보인다. 신년 신규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경주 남산은 산 전체가 불국정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에는 150여 곳의 절터가 있고, 불상은 130여 구가 있으며, 100여 기의 불탑과 22기의 석등 그리고 19점의 연화대가 있다. 전체 문화유산으로는 국보 1점, 보물 14점, 사적 15개소가 있다. 말 그래로 경주 남산은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사찰이다. 오랫동안 경주 남산을 답사하며 불교문화유산들을 살펴온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인 무진 스님이 한국 불자들이 지키고 가꿔야 할 경주 남산의 면면을 조명한다.

목경찬의 '사찰 설화 탐사대'



사찰엔 옛이야기가 숨어있다. 큰스님이 땅에 꽂은 지팡이는 사찰을 수호하는 나무로 자라나고, 자신의 몸을 불속에 내던져 부처님께 공양한 원숭이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주문이나 염주알 개수, 타종하는 횟수까지 숫자마저도 이야기가 되는 불교. 곳곳에 숨겨진 불교설화를 찾아간다. 순례 전문 이야기꾼 목경찬 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유식불교를 전공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역경원 번역사업에 참여하고, 현재 여러 불교대학에서 교리와 불교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은 팔만사천 경전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또한 중국을 거쳐 경전이 전해졌기에 한문으로 이뤄져 현대인들이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엔 어렵다. 그렇기에 일반 불자들은 넓고도 넓은 경전의 숲 입구에서 어디로 갈지 헤매기 일쑤다. 경전이야기꾼을 자처하는 이미령 작가가 부처님 경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담백하고 잔잔한 이미령 작가의 글맛은 보너스.

장보배의 '사찰 국수 기행-스님이 웃는다'



산사의 먹을거리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 국수. 스님들을 미소짓게 만든다는 뜻에서 '승소'라 한다. 사찰 국수 기행 '스님이 웃는다'는 스님들의 검박한 삶과 수행 이야기를 한 그릇에 담아 독자들에게 전한다. 사찰 국수 기행을 이끌어갈 장보배 작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템플스테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한국의 불교 문화유산과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산사 풍경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있다.

박동춘의 '차 이야기'



명대 하수방(1551~1635)이 저술한 〈다동〉은 4자로 구성된 차의 고사집(故事集)이다. 특히 〈다동〉은 초의 선사가 〈동다송〉을 저술하면서 차 문화의 고사를 참고했던 문헌이어서 중요하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다동〉 번역과 해설을 통해 한국 차의 문예적 가치나 차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44년 동안 차를 만들고, 즐기면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내용들도 산문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할 계획이다.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하늘의 뭉게구름처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몽글몽글한 얼굴과 마음을 가진 뭉밀이 캐릭터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행복 메시지를 전한다. 뭉밀이의 일상을 그려나갈 현밀 스님은 2023년 운문승가대를 졸업하고, 제7기 조계종 교육원 전문습의사로 활동 중이다.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활동하며 뭉밀이 캐릭터를 활용, 일러스트뿐 아니라 굿즈 등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애의 '안심뜰'



29년째 불교를 만나 마음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며 상담해온 안심(安心)전문가 김영애 법사가 누구나 안심하는 법을 전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 문사수법회 법사이면서 성장커뮤니티 '퓨처스쿨' 리더인 김영애 법사가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며 나눈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보자. 김영애 법사는 온라인에서 〈금강경법문〉 윤독과 감사의 108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문사수법회에서 법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하성미의 '心心talktalk'



부처님의 심리상담 지혜를 전한다. 하성미 기자는 상담현장에서 우울증, 신체화, 공황장애, 성폭력, 강박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나 치료해왔다. 하성미 기자는 마음이 궁금해 불교를 만났고 20년 전 부처님께 귀의했다. 기독교에서 방황하며 혼란스러웠던 청년기를 마무리하고 글과 사진을 도구 삼아 불법의 현장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2급),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2급) 자격을 갖고 있다.

오피니언 논설위원들


법장 스님


법현 스님


명법 스님


정운 스님


성제 정사


이성운


조기룡


석길암


효록 스님


최명숙


박수호


지승도


최원형


이상근


이화행


방영준

2024년부터 오피니언 지면을 확대함에 따라 논설위원 칼럼을 불교계 현안을 다루는 '현불논단'과 세간의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에 따라 논설위원들도 대거 확대했다.

'현불논단' 신임 논설위원인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각 교육기관 등서 미학과 명상, 불교교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미국부처님은 몇 살입니까?〉 〈미술관에 간 붓다〉 〈은유와 마음〉 등이 있다. 현재, 해인사 국일암 감원으로 주석 중이다.

저자거리 포교로 잘 알려진 법현 스님은 열린선원장을 비롯해 평택 보국사·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대중에게 불교를 전하고 있다.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법현 스님과 함께 하는 법구경〉 등의 저서를 썼다.

진각종 교화자인 성제 정사는 일본 다이쇼 대학(大正大學)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았다. 진각종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학과장), 한국밀교학회 이사,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동국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계종 의례위원회 실무위원,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냈다. 현재 세계불학원(붓다아카데미) 연구소장, 서울시무형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불교의 행위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영산·수륙재 등 의례와 실천 관련 논문 수십 편을 썼다.

종무행정 전문가로 잘 알려진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를 받았다. 불교종무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종무행정론〉 〈사찰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를 저술·발간했다.

'세간과 출세간' 신임 논설위원 효록 스님은 청암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자아초월상담학으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로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수퍼바이저), 한국불교상담학회 수퍼바이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성소수자 법회를 앞장서 이끌고 있다.

불자 장애예술인 모임 보리수아래를 이끄는 최명숙 대표는 〈시와 비평〉으로 등단한 불자 시인이다. 자신도 뇌성마비를 앓았던 최 대표는 불교 장애인 복지와 전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2002),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2015), 서울복지상 우수상(2016),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2018) 등을 수상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동양사회사상학회, 한국이론사회학회, 불교학연구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지역사회학회 등에서 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관련된 사회학적 연구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불교사회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포스트휴먼 사회와 불교, 불교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연구 관심을 넓히고 있다.

지승도 한국항공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저서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로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다. 사람을 이익 되게 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은 과학, 철학, 종교, 인문을 통섭하는 초과학에 실마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붓다의 철학과 과학을 이용한 인공지혜 신기술 이슈에 전념하고 있다.

생태 환경 저널리스트인 최원형 작가는 잡지사 기자와 EBS, KBS 방송작가로 활동했다. 현재는 생태·에너지·기후변화와 관련해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착한 소비는 없다〉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사계절 기억책〉 등이 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를 시작으로 문화재환수국제연대를 거쳐 현재까지 국외 소재 문화재 출처 조사와 환수작업, 정책 제안, 문화유산 보전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환수 전문가다. 저서로는 〈돌아온, 돌아와야 할 우리 문화유산〉(공저), 〈문화재 전쟁〉(공저)이 있다.

